

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

2.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? [레19:9-10]

✚ 말씀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.

✚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여러분은 세상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시나요?

✚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. 그런데 먼저 '왜 세상은 엉망인가?'라는 질문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.

① 가장 큰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.

⇒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(ㅂ)과 (ㅅ ㄱ)의 역할을 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.

②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, 넓게 보면 인류의 문제에 있습니다.

⇒ 세상이 엉망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입니다.

✚ 항상 중요한 명제는 세상이 엉망이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.

✚ 인생의 저명한 선배들은 세상의 불공정과 불공평을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의 눈에 보인 '불공평한 세상'과 불평하는 사람 눈에 보인 '불공평한 세상'은 분명히 다르다. - 빌게이츠

⇒ 빌게이츠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달라지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이라고 말합니다. 도전하는 자에게는 불평등한 세상이 (ㄱ ㅎ)로, 불평하는 자에게는 (ㅈ ㅁ)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.

② 인간은 부당해도, 신은 공정하다.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.

-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(미국시인)

⇒ 미국의 시인은 세상에서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 신은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말하며 인간의 부당함을 신의 (ㅍ)으로 돌리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.

③ 세상은 서러움 그 자체고 인생은 불공정, 불공평이야 서러움이 있지 왜 없어. 그런데 그 서러움은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 같아. 나는 내가 극복했어. - 윤여정

⇒ 윤여정 배우는 아무리 불평해도 세상이 공정하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걸 (〇 x)합니다. 그렇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하는 부분과 견뎌내야 하는 부분을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

❖ **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들입니다. 인생의 선배들처럼 내 자녀에게, 다음세대에게 남길 명언을 한 번 만들어 봅시다.**

ex) 세상이 불공정하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더 빛을 발한다.

나는 오늘도 엉망인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기 위해 봉어빵을 들고 나선다.

✚ 믿지 않는 사람들이 “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인가?”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선 먼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.

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인가?

⇒ 이런 의도일 수도 있지만 질문의 전제가 ‘하나님께서 계시다면...’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. 질문하는 사람이 만일 1번의 의도였다고 한다면 그에게 질문 자체가 (ㅁ x)이라고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.

②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것인가?

⇒ 대부분 2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.

가) 세상이 엉망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가?

⇒ 이 질문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필요성과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물음입니다. 이 질문에는 “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진 않을 텐데 하나님이 없기에 세상이 엉망이야”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.

나) 세상이 엉망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가?

⇒ 이 질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

- 1) 하나님이 엉망이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다.
- 2) 엉망처럼 보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.

다) 세상이 엉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기 때문인가?

⇒ 이 질문은 ‘신은 일하지 않는 무능력한 존재’라는 전제에서 비롯됐지만, 신이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,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일하지 않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질문입니다.

라) 세상이 엉망인 이유는 하나님이 일부러 유기하거나 방관하기 때문인가?

⇒ 이 질문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.

- 1)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방관하고 있다.
- 2) 하나님은 일하고 있지만 미련한 인간의 눈에는 방관하는 것처럼 보인다.

❖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외워봅시다.
 (옆 사람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.)

☞ 이러한 모든 질문을 모아 한마디로 정리하면, “하나님이 있는데 왜 빈곤이 있고, 전쟁이 있고, 고통이 있고, 차별이 있으며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선한 자들을 억압하는 세상이 되었나요?”일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3,500년 전에 이미 답변하셨습니다.

☞ 다같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- ① (ㄱ ㄴ ㅎ ㅅ ㄹ), (ㄱ ㄹ ㅁ)을 위하여 밭 모퉁이의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도 말라
 ⇒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밭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. 가난한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며, 거류민은 외국인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땅임을 기억하고 약자를 위해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.
- ② 너는 (ㄷ ㄷ ㅈ) 하지 말며, 속이지 말며, (ㄱ ㅈ ㅁ)하지 말라
 ⇒ 내가 너에게 먹고 살 땅을 주었으니 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.
- ③ 하나님의 (ㅇ ㄹ)을 욕되게 하지 말라
 ⇒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다른 이들을 현혹시키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거짓 신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.
- ④ 네 (ㅇ ㅇ)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에게 (ㅅ)을 주는 것을 미루지 말아라
 ⇒ 노동자는 착취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하시며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임금을 미루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.
- ⑤ 귀먹은 자를 (ㅈ ㅈ)하지 말며, 맹인 앞에 (ㅈ ㅇ ㅁ)을 놓지 말라
 ⇒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장애물을 치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.

- ✚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법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하십니다.

- ✚ 세상이 영망인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,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.

- ❖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, 작지만 영망인 세상의 빛이 되어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.